10년 만에 착해진 '칠봉이'

메트로 2014년 1월 9일 목요일 www.metrobusan.co.kr

박지성 대표팀 복귀 가능성

비명 들리면 고개 휙 관제센터 알람 통보

지능형 CCTV내년 전국 설치

비명 소리 등을 감지하고 생김새와 체형 등을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를 개발, 올해 시범 적용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지능형 CCTV는 현장에 비명이나 자동차 충돌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등이 나면 소리감지장치를 통해 즉시 감지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비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비명이 나면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사고 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거리고, 경찰에 상황이 전달된다.

또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의 생김새·의상·체형 등 주요 특징 정보를 입력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정보와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CCTV를 올해 해당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다서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 통합관제센터에 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다혜기자 ydh@

한파주의보 속 특전사 대원들의 포효 8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에서 겨울 특전사 설한지 극복훈련 에서 웃통을 벗은 특전사 요원들이 눈을 뿌리며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설한지 훈련은 악조건의 기상과 맞서는 특전사원의 고유 동계훈련이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영서, 충북 북부, 전북 동부 내륙 등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처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살뜰한 새해' 알뜰폰 갈아탈까

'1000원 요금제' 등 소문 타고 가입자 급증…편의점·우체국 이어 농협서도 판매 "점유율 10% 목표"

알뜰폰(MVNO)이 가계 통신비 절감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대 50% 이상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인해 지난해 알뜰폰은 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012년 말 127만여 명에 불과했던 알뜰폰 가입자는 1년 새 두 배가 늘어난 25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을 앞세운 것이 주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대가 인하와 우체국 알뜰폰 판매 등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에 직접 나섰다.

"알뜰폰으로 바꿨더니 월 5만원 하던 통신비가 3만원으로 줄었어요."

A씨는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기본료가 1000원에 불과하다는 우체국 알뜰폰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우체국을 찾아 이동통신사를 알뜰폰 업계로 변경했다. 데이터 이용량이 거의 없던 A씨는 통화만을 위해서는 폴더형 피처폰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이를 구입했다. 월 1000원 요금제로 가입한 첫 달 A씨의 통신료는 3만원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B씨는 새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찾았다. B씨는 기존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용 세컨드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렴한 알뜰폰 구매에 나섰다. 특히 동네 편의점에서도 쉽게 알뜰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B씨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매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틀 뒤 해당 알뜰폰 업체에서 가입을 위한 안내 전화가 왔다. B씨는 편의점에서도 기본료 1000원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금제에 가입했다.

또 알뜰폰 활성화의 걸림돌이 오프라인 유통망 부재인 것을 인지하고 전국 226개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했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지난 9월 27일 처음 판매를 시작한 뒤, 1000원 요금제 출시 등에 힘입어 판매 3개월여 만에 가입자 4만 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업계의 점유율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4~5%에 불과하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2014년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가량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250만 명까지 확보한 가입자 수를 올해 또다시 두 배가량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우체국에 이어 올해부터는 농협도 본격적으로 알뜰폰 판매에 가세한다. 지난달 12일 농협 경기 고양·성남·수원 유통센터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올 초 전국 2100여 개 하나로마트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다양한 요금제, 단말기 라인업 강화, 다양한 판로 개척 등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알뜰폰 브랜드 제고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피처폰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으로 영업 부문에 힘을 쏟아 성과를 보일 계획"이라며 "2014년이 알뜰폰 전성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구성되면서 정부, 제조사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생겼다"며 "올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지원 정책과 제조사와의 단말기 수급 문제 해결 등이 이뤄지면서 알뜰폰 시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다혜기자 ydh0410@metroseoul.co.kr

창조경제에 달린 미래부의 미래

가지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첫해가 지났다. 정부는 미래부 첫해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를 뒀으며 올해는 결실을 맺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수립된 창조경제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 창업을 돕겠다고 전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도 같은 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워크숍에서 "지난해가 창조경제를 위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이뤄낸 시기라면 올해는 민간이 앞에서 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가 설립된 뒤 창조경제의 의미부터 관련 정책까지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난해 창조경제타운을 오픈하고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일부 결과적인 요소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창조경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올해도 창조경제에 대한 이런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미래부 설립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미래부가 올해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그 결실을 보여주기 위해 갑오년 청마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다.

<서울 경전철 노선>

신림·동북선 연내 착공

박원순 시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우이~신설선은 2016년 개통 가능"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10개 노선 중 신림·동북선이 이르면 올해 착공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신림·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타결하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이~신설선도 공사 현장에 내려가 보니 터널 굴착이 끝나 공정률이 64%로 내년에 8개월간 시험 운전 후 2016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11.4㎞, 13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호선 보문역, 1·2호선 신설동역과 환승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이라며 "경기 침체로 투자가 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MRG가 없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 관계자 및 관련 직원들과 함께 지하 61m 터널 막장으로 내려가 터널 내 산소 농도를 점검하고, 휴게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체크했다.

/김민준기자 mj[illegible]@metroseoul.co.kr

수요집회 22년 … 대답없는 일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2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길원옥(가운데)·김복동(오른쪽) 할머니 등 정대협 회원들이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소치 올림픽 D-30 … 태릉 찾은 박 대통령 소치 동계올림픽을 30일 앞둔 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업체 대기환경법 나몰라라

17곳에 51억 과징금 부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 등 수입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실정법까지 무시한 채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 인증 및 품질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등 총 22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51억3225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BMW코리아(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18건), 기아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0억7301만원)가 1위였다. 한국토요타자동차(10억6754만원), 한국GM(10억200만원), 쌍용자동차(10억100만원) 등도 10억원이 넘었다.

/김현준기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바꾼 학교들 외압 있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번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다혜기자

일괄사표 냈던 총리실 1급 절반 경질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질됐다.

총리실은 8일 "1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낸 10명 가운데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화악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은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충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은 사직 처리됐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실장에는 이정우 총무기획관이,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이 각각 승진됐다.

/김민준기자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점검 서남수(왼쪽) 교육부 장관이 7일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국가장학금 비상상황실을 둘러보고 곽병선 이사장에게 차질 없는 진행을 독려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못 말리는 한국 흡연자

하루 흡연량, 세계평균보다 7개비 많은 25개비…32년 전보다도 늘어

한국의 흡연량과 흡연자 비율 모두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대-호주 멜버른대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2년간 15세 이상 흡연 인구의 수와 이들의 흡연량 등을 추정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흡연자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개비를 태웠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7개비)보다 약 41% 많다. 한국의 1980년 수치(22.7개비)와 비교해도 늘었다.

흡연자 비율 역시 2012년 전체 인구의 23.9%로 세계 평균 18.7%를 웃돈다. 특히 남성 흡연율(41.8%)은 세계 평균(31.1%)과 10%포인트 넘는 괴리를 보였다. 전체 흡연자 수는 996만 명으로 1980년(845만 명)보다 150만여 명 늘었다.

전세 187개국의 흡연율은 1980년 25.9%에서 2012년 18.7%로 하락했다. 연간 담배 소비량도 같은 기간 4조9581억 개비에서 6조2469억 개비로 증가했다. 흡연자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의 양은 18.8개비에서 17.7개비로 소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흡연율이 계속 크게 줄고 있지만 세계 연간 사망자의 6.9%(570만 명)가 여전히 담배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각국이 더 강화된 흡연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더 낮은 곳으로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최로 열린 사제·부제 서품식에서 선발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크리에이션 수강생 모집

서울시 노원구는 13일부터 노래교실, 댄스 등 레크리에이션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 24일까지 연중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 '수락홀 문화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매주 2시간 2만4000원이다.

내일 오후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시 성동구가 갑오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2시부터 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14 성동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구민 등 1700여 명을 초청했다.

벌써 시작된 귀성전쟁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택시에 NFC 태그…스마트폰만 대면 안심귀가

서울시가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내 택시 7만2000대 중 법인택시 1만7000대에 NFC 태그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NFC 안심귀가서비스는 NFC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우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만 이용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면 '안심 번호 관리' 메뉴로 들어가 택시 승하차 정보를 전송할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택시를 탈 때마다 휴대전화를 태그에 접촉해 '승차 알림' 또는 '하차 알림' 메시지를 선택해 보내면 된다. /조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훈

프랑스 작가 보부아르 탄생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08년 1월 9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21세로 최연소 철학교수 자격을 얻으면서 사르트르와 ... 실존주의 철학을 ... 과 ... 의 기초로 삼아 ... 지성으로 발전했다. ... 소설과 에세이를 지속한 그녀는 ... '제2의 성'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얻으켰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 계약결혼 상태로 ... 관계로도 유명하다.

한성엔카텍 회장 모교에 발전기금
㈜한성엔카텍 안성현(오른쪽)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을 방문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중입자 가속기>

기장에 '꿈의 암 치료기' 들어온다

중입자치료센터 장안에 내일 착공… 2016년 개원

부산 기장군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기장군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앞에서 조청구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말 개원할 예정인 중입자치료센터에는 빛의 70% 속력으로 가속된 탄소 원자가 인체 내 암세포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선다.

중입자 가속기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현재 일본과 독일에서만 5대가 가동 중이다.

1950억원이 투입되는 중입자치료센터는 8만813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전체면적 1만8352㎡ 규모로 건립된다.

기장군은 중입자치료센터와 함께 2016년과 2018년 각각 완공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이 들어서면 기장군이 의·과학 융합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00억원이 투입,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에 조성되는 신형 연구로(20MW급)는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쓸 수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과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은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 개발과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진지한 미술실기 고사장 8일 오전 부산 동아대 승학캠퍼스 유도장에서 열린 201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군 미술계 실기고사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날 실기고사에는 6개 종목에 339명이 응시했다. /뉴시스

수산과학관 리모델링 관람객 20% 늘어났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수산과학관이 지난해 리모델링 완료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산과학관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완료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1만4000여 명이 수산과학관을 다녀가 리모델링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관람객이 20.2% 증가했다.

수산과학관은 1997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해양 전문 과학관으로 2011년 리모델링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1년8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전시관 일부 514㎡ 면적에 6개 코너를 새로이 단장했다.

한편 수산과학관은 전시관 리모델링과 더불어 45개의 바다 관련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며 지난해 1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수산과학관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수산과학관 김영심 관장은 "지난해 완공된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기획전 확대를 통한 수산·해양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교기자

청소년문화교류 엑스포 유치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 축제인 '2014 세계 청소년문화교류 엑스포'가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관광공사는 세계청소년교류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청소년문화교류 엑스포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 5~7일 벡스코 등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30개국에서 외국인 3000여 명을 포함, 모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청소년 행사다.

청소년문화교류 엑스포는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공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축전이다. 대회에서는 글로벌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은 문화존, 도전존, 공감존, 나눔존 등 4개 분야별로 나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수년간 억대 리베이트 받은 화승 계열사 임원 5명 적발

납품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지역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5명을 적발, 4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전무이사였던 A(50·구속)씨는 B(51·구속) 이사, C(51·불구속) 이사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 납품업체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48·구속) 이사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금품을 E(58) 이사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이사는 현재 스텔스 잠수함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화승 측 관계자는 "회사 임원들의 조직적인 납품 비리는 아니고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85개사 부산 전입…6년 연속 증가

제조업종이 가장 많아

부산시는 5명 이상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전입·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개 기업이 부산으로 전입하고 27개 기업이 부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2008년 전출 기업보다 전입 기업의 수가 많아진 이후 6년 연속 전입 기업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전입한 85개사는 제조업 67개사, 정보기술 관련 서비스업 14개사, 방송·통신 출판업 등 4개사로 제조업체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부산권 국제물류·미음산단 53개사, 동부산권 명례·정관산단 12개사 등으로 대부분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부산으로 전입하기 전의 소재지는 경남 43개사, 수도권 16개사, 울산 8개사, 기타 18개사로 부산과 인접한 경남과 울산 소재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 기업은 지역 내 산업용지 매입(51만9000㎡)과 공장 신축에 따른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신규 고용(2300여 명) 창출로 지역 내 고용률 상승에도 공헌했다. 대표적 전입기업으로는 ▲지난해 1월 미음 LG CNS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수도권 인터넷 예산자 회사인 K사 ▲충남 당진 소재 강관 제조업체로 미음산단 용지를 우선 분양받은 M사 등이 있다.

필드로봇제어 시스템 설계 특성화고 교원 직무연수

최근 학력 위주의 채용 풍토 속에 특성화고교도 취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오히려 대학 진학 희망자가 많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오는 17일까지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마련된 현장직무연수는 전문 연수기관과 기업체가 협력해 현장 실습을 50% 이상 반영해 특성화고 교원의 산업체 현장성 제고를 통해 취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필드로봇제어 시스템 설계 과정으로 대학에서 이론 수업을 통해 학습한 로봇설계·프로그래밍 기술을 기업체의 필드로봇 제작 현장에서 직접 체험·도입해보고, 향후 관련 기술을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수 내용은 필드로봇 설계 및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에뮬레이터(Emulator 제작) ASM과 C언어를 활용한 로봇 프로그래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체 현장 연수에서 리니어로봇, 식물공장 로봇 시스템, 세그웨이 로봇, 해양로봇 시스템 등 다양한 실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재운 학장은 "이번 연수가 교육현장 일선에서 힘쓰는 교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현장성을 강화해 특성화고의 내실화와 취업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6일 특성화고 교직원들이 폴리텍 부산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직무연수 교육 전 PCB 실습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혁교기자 hjk@metroseoul.co.kr

영화의 전당 고품격 음식점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 '더믹스드원' 3월 오픈 예정
새 스타일 세미뷔페… "문화도 파는 외식명소 조성"

영화의전당에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이 운영하는 고품격 레스토랑(가칭 '더믹스드원')이 들어선다.

8일 영화의전당 측에 따르면 더블콘 식음료공간 운영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 2013년 12월 18일 에드워드 권과 운영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영화의전당 더블콘 2~4층을 독특한 색깔을 가진 레스토랑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3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이 레스토랑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음식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부산에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세미뷔페인 만큼 엄선된 호텔식 뷔페 메뉴와 프리미엄급 트렌디 단품 메뉴 서비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에드워드 권은 "기존 외식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부산 출신의 뛰어난 신예 작가들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외식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만 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식사를 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게 에드워드 권의 복안이다.

특히 고급화된 음식 문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외식 문화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것.

그는 그동안 부산지역 고객들과의 소통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영화의전당이 고품격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더블콘은 빅루프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건물로 영화의전당은 공개 입찰을 실시하는 등 레스토랑 운영 사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둥이 많은 난해한 내부 구조로 인해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블콘은 지난해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게스트 라운지로 이용됐고, 장국영 전시회 '부산-홍콩 친구를 만나다' 전시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들어설 레스토랑으로 영화의전당이 지역의 문화와 음식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외식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동서학원 신년하례회 열어 학교법인 동서학원설립자 장성만(이)은 지난 7일 동서대 뉴밀레니엄관 소향아트홀에서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축하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모범 선행시민을 찾습니다

부산시는 시정 발전과 이웃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모범 시민을 찾아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 모범선행시민'을 찾아나섰다.

모범선행시민 추천 대상은 추천일 현재 부산 시민으로 ▲홀몸 노인, 저소득 청소년, 노숙자, 실직자 돕기 등 대가 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거나 불우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내 사랑 부산 운동,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사건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에 앞장선 시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민 등이다.

후보자는 1차로 내달 3일, 2차는 5월 30일, 3차는 10월 31일까지 전 부서 또는 각 자치구·군,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부산시민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천 서류는 부산시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이웃과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한 선행 시민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온정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수상자 발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부산아쿠아리움 연간회원권 41% 할인 2만8000원에 판매

부산아쿠아리움은 이날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41% 할인된 가격인 2만8000원에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착한 연간회원권'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착한 연간회원권은 기존 4만8000원에서 41% 할인된 가격으로 성인 1회 입장 요금인 2만1000원에 7000원만 더하면 1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 연간회원권 1매 구매 시 부산·경남지역 소외계층 1인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착한 기부 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착한 연간회원권으로 1년간 부산아쿠아리움 무료 입장 및 3D라이더 50% 할인, 기념품점 10% 할인 등의 혜택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동반인 최대 4인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입장이 가능하다.

연간회원권은 부산아쿠아리움 전용 창구에서 가입해 발급하거나 홈페이지(www.busanaquarium.com)에 연계된 그루폰 사이트에서 가입 및 결제 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051)740-1700

신나는 눈 굴리기 눈이 내린 8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 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기 위한 눈을 굴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소주가 품은 47가지 향토 이야기

대선주조 공모전 수상작 라벨부착 '예 소주' 특별제작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주)가 예 소주 라벨 디자이너들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선주조는 '제2회 예 소주 라벨 디자인 공모전'의 47개 수상작 전체에 대해 특별 증정용 예 소주를 제작해 59명 수상자 전원에게 각자 작품이 실제 라벨로 부착된 예 소주를 40여 병씩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회 라벨 공모전에 따른 것으로, 공모전 직후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된 5개 라벨 외에도 미(未)상용화 수상작 42개 작품의 라벨이 이번에 특별 생산됐다.

특별 라벨은 판매용이 아닌 고객 증정용으로만 활용된다.

대선주조는 우수한 작품이 대거 접수됐음에도 유통 과정 등의 이유로 수상작 전체를 상용화 하지는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특별 라벨 제작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선주조 박진배 대표이사는 '라벨 디자인 공모전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선주조가 부산 시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해마다 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보고 듣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향토기업 대선주조에 뜻깊은 원동력이 되는 만큼 보내주신 귀한 정성에 아쉽게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반부 입선 수상자 김모(여·31·부산 연제구)씨는 "실물로 받으니 마치 한정판 제품을 선물 받은 것 같다"며 "새해에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늘어 기쁘고 대선주조의 꾸준한 관심에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하균기자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3년)	환율
1958.16	509.78	2.9%	1058.00
(-0.48)	(+4.92)	(변동없음)	(-2.50)

홈페이지 보안수준 이통사>포털>웹하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보안 수준은 양호한 반면, 인터넷 포털사와 웹하드사의 보안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 취약점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포털, 웹하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16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통3사의 보안취약 평가 점수가 평균 13점으로 양호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포털과 웹하드 업체는 각각 평균 60점과 59점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조사 주요 점검 항목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액티브X와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안전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뉴스&뉴스

새로 나온 '대왕' 딸기 맛보세요

8일 수원시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농진청이 육성한 딸기 품종 '대왕'을 과학원 직원들이 수확하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의 조사 결과 올해 겨울 과일 매출에서 딸기가 감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모집인 영업 폐지

● 은행 대출모집인이 사실상 연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내부 유휴 인력을 활용해 대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전격 중단했다. /김민지기자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 우수 창업자로 선정되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연간 1000여 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4월부터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하면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시행한다.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여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국명기자

LG전자 '갑의 횡포' 19억 과징금

건설사 빌트인가전 구매대금 1300여억원
29개 영업점에 최대 100% 연대보증 강요

LG전자가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8일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 지급에 대해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게 441건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토록 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 요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정된 영업 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LG전자 영업전문점의 영업 활동으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2분의 1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주수수료'라 하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수수료의 나머지 2분의 1을 지급하는데 이를 '본납수수료'라 한다.

LG전자는 재정 상태가 악화돼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건설사의 경우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에 따른 증대시키는 방식을 동원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공정위는 중개 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리스크를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해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림기자 ktg 11@metroseoul.co.kr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개숙인 카드 3사 사장들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드사 사장들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연합뉴스

카드사 3곳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국민·NH농협·롯데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의 고객 정보 1억 건 이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카드사들의 허술한 보안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 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이모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CB 관계자는 "박씨는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이라며 "업무 도중 취득한 카드사 고객의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정에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카드사들은 정확한 유출 건수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으려면 관련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관행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1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올해 초 특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inj@

회사채 3조 부메랑 계열사 탓 우는 6곳

주요 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기업 6곳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중에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85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1조41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며 이 중 8300억원이 상반기에 몰렸다.

한진해운은 올해 안으로 회사채 3900억원과 CP 5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채 1000억원, 현대상선의 경우 회사채 4200억원과 CP 4000억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대성산업과 대성산업가스는 올해 각각 1000억원, 25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올해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향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현정기자 hjkim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옥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0-2100
독자센터 02)721-9856

뛰는 위안화에 올라탈까

삼성전자가 CES 2014에서 BMW, 자전거 제조사 드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갤럭시 시리즈를 다양한 제품과 연결해 활용하는 사례들을 시연했다. CES 전시장에 공개된 갤럭시 기어와 BMW i3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와! 갤럭시 기어로 i3 맘대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CES에서 '케어 허브' 시연

삼성전자가 CES 2014에서 BMW, 자전거 제조사 드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갤럭시 시리즈를 다양한 제품과 연결해 활용하는 사례를 시연했다. 스마트 기기를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닌 연결의 허브로 활용해 자동차, 자전거, 프린터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

삼성전자는 BMW와 공동으로 개발한 갤럭시 기어 전용 i리모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갤럭시 기어로 BMW 최초의 전기자동차인 i3를 제어하는 다양한 상황을 시연했다.

사용자는 갤럭시 기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i3의 ▲배터리 현황 ▲충전 시간 ▲도어 개폐 현황 ▲운행 기록 등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차량 온도 조절과 음성 인식 기능인 S 보이스 등 통해 단말에 저장된 주소를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보낼 수 있다.

갤럭시 노트3와 연결된 트렉의 커넥티드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노트3를 충전 할 수 있고, 프레임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한 속도, 박자, 거리 등 그래프를 갤럭시 노트 3나 갤럭시 기어의 화면을 통해 표시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에게 스마트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또 3D 프린팅 업체인 3D 시스템즈사와 협업해 방문자가 갤럭시 노트3를 통해 디자인한 다양한 아이템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한편 아트 토이 전문 업체 키드로봇사는 갤럭시 제품들에서 영감을 얻은 키드로봇 피규어들을 전시했다. 3개의 대형 피규어와 여러 개의 미니 피규어들이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노트 프로, 케이스들과 조화를 이루며 전시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파트너십을 통해 최신 스마트 기기 갤럭시 시리즈를 우리 일상 생활에 더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태근기자 tgcho@

최근 1년 여간 대폭 절상 국내 예금보다 높은 수익 2분기부터 간접투자 할만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서 힘을 얻으면서 위안화에 투자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위안화 예금이나 중국 증시를 좇는 상장지수펀드(ETF), 중국 테마주 관련 펀드 등이 위안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4대 중국계 은행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연말 기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3조원에 육박하는 예금이 몰렸다.

위안화 예금의 투자 수익률이 연 3%대 초반이므로 저금리 기조에 2%대로 내려온 국내 예금보다 높은 점이 자금을 끌어당긴 것으로 풀이됐다.

위안화 절상폭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위안화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1% 넘게 절상됐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QE3)를 시작해 시중에 미 달러화를 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는 위안화의 절상폭이 특히 컸다. 이 기간 위안화는 7~8% 절상됐다.

다만 위안화 절상이 꽤 진행됐으므로 현 시점에서 더 강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현재는 위안화 절상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므로 추가 절상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매년 위안화 절상폭을 연간 3%로 목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이를 충족했다"며 "올해엔 하반기에 속도를 내면서 2% 절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련 ETF나 중국 테마주 펀드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증시가 위축되면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 가령 거래소에 상장한 '킨덱스 중국본토CSI300'와 '코덱스 차이나 H'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각각 -3.19%, -3.7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면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성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유동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오는 2분기부터 증시가 긍정적일 것"이라며 "중국 소비업종 등 테마주 펀드에 대한 투자가 ETF보다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도자기 위에 개구리 폴짝 · 나비 펄펄 한국도자기가 8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사옥에서 개구리, 무당벌레, 나비 등 자연을 주제로 새롭게 출시한 '다이얼렉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달러 분할매입이 답이다

환율 요동 기러기아빠 전략

외화통장 활용 주목 – 송금 수수료 감면 혜택도

원·달러 환율의 널뛰기가 계속되면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외화예금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외화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자유적립식으로 꾸준히 외화를 분할 매입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다.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만 하는 유학생, 학부모라면 환헤지 기능에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외화예금 통장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은행은 매월 이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KB국민업(UP) 외화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예금 기간 중간에 분할 인출을 허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매월 계단식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1년제 정기예금이다. 최저 가입 금액은 미화 1000달러 이상이다. 이자율은 1개월 단위로 연 0.54%에서 연 1.34%까지 매월 계단식으로 상승해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 이율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월드 송금 통장'은 외국인 근로자 송금이나 유학생 송금 등에 특화된 상품. 환율, 송금액 등 송금 기준을 고객이 지정할 수 있고 1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한 무료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환율과 해외 송금수수료도 30% 우대해준다.

하나은행의 '하나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은 고객이 유학,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가입하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 중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50% 깎아주고 예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줄 금할 때는 현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새해 복 나눠 드려요" 8일 인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과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직원들이 복조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2일까지 새해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복조리를 국내 사업장에 내건다. /대한항공 제공

대기업 입사 3월을 노려라

30대 그룹 62% 공채 시행 서류접수 평균 12일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를 노리는 구직자라면 3월을 대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류 접수 기간은 평균 12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신입 및 인턴 사원을 채용한 기업의 채용 공고 33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사의 경우 3월(61.9%)에 공채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2월 21~26일)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현대자동차(3월 4~11일), SK그룹(3월 4~23일), 현대중공업(3월 4~15일), 한화그룹(3월 5~19일), 한국도로공사(3월 11~15일), STX그룹(3월 13~26일), CJ그룹(3월 14~26일), 대림그룹(3월 14~27일), 삼성그룹(3월 18~22일) 등의 순으로 채용이 진행됐다.

이외의 기업들은 4월 공채가 24.4%로 가장 많았다. 3월(20.6%), 1월(18.5%), 5월(16.2%), 2월(14.7%), 6월(5.6%) 등이 뒤를 이었다.

서류 접수를 받은 기간은 평균 12일로 조사됐다. 8~14일간 접수를 받은 기업이 72.1%였으며, 15~21일간은 13.7%, 7일 이하는 11.2%, 22~28일간은 2.3%, 29일 이상은 0.8%였다.

사람인 관계자는 "올해 공채 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람인 홈페이지의 '100대 기업 공채속보' 게시판에서 지난해 공채 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lgh@

HP·AMD "노트북 100대 팔면 1대 기부"

티몬과 손잡고 행사 진행

PC 메이커 HP, 컴퓨터 부품업체 AMD는 지난해 소셜커머스 티몬과 손잡고 '아름다운 노트북' 딜을 진행했다.

이는 제품 100대를 팔면 1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소셜 기부다. 이 딜 덕에 어려운 이웃들이 64대의 노트북을 선물받았다. 기부도 소셜네트워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티몬의 사회공헌 캠페인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었다.

지난해 기부금 모금 및 사회적 기업의 제품 판매와 파트너사의 자발적 후원 등을 통한 총 기부 활동 금액은 1억1400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부기구(NGO)에 기부된 금액이 6800만원, 수수료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상품의 판매에서 4600만원이며 이러한 기부 활동에 참여한 고객의 수는 2만5597명에 달했다.

티몬 직원이 소셜 기부로 확보한 선물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티몬 제공

이는 2012년의 8000만원보다 30% 성장했고 기부의 형태나 전달 대상, 참여자 수도 늘어나 '소셜 기부'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티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티몬의 소셜 기부는 2010년 12월 '아름다운가게' 등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수수료 없이 판매 대행하던 것에서 나아가 2012년 NGO와 고객을 연결하는 기부금 펀드라이징 형태로 확장됐다. /박상훈기자 zen@

정보통신 ☀ 차·섬유 ☀

대한상의 2014 산업기상도

올해 수요 업종의 산업기상도는 정보통신 '맑음', 자동차·석유화학·섬유 '구름 조금', 조선·철강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2014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 자동차·기계·석유화학·섬유·플랜트·건설 등 6개 업종은 '구름 조금', 정유·조선 등 2개 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맑음으로 분석됐다. 보바일 스마트 기기 혁신 속에 ▲반도체·SSD·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중국·태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LTE 스마트폰 판매 유지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또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디스플레이도 월드컵·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영향으로 살아날 전망이다.

자동차업종도 작년에 이어 올해 '구름 조금'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신차 출시 및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현대·기아차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주말특근 미실시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

내년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증가, 노후 차량의 교체 수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철강업종은 작년 '흐림'에서 올해 '구름 조금'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전력 수급상의 문제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며 부진한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의 신증설 설비 가동률 향상에 따른 생산 증가 등이 기대된다.

건설업종도 전년 대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대되는 회복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수도권 수혜 가능성 등 영향으로 건설업종 경기가 개선돼 '구름 조금'으로 전망됐다. /김태균기자 ksea@

청약통장, 너 나와!

올해 수도권 분양물량 38% 늘어 11만4000가구… '내집' 찜 하세요

지난해 수도권 분양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단위 사업비와 규모 등을 내세워 흥행을 예고했던 단지들은 참패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강남권과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요자들이 유망 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를 알아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수도권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작년(8만2062가구)보다 38.8% 증가한 11만3948가구다. 경기도가 6만945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90가구 ▲신도시 1만1423가구 ▲인천 1만379가구 순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작년에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외 일반 분양 물량이 귀한 데다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과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아파트가 관심을 끈다. 각각 전체 3658가구, 9510가구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1114가구와 15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작년 분양 열풍을 몰고 온 위례신도시로도 이목이 쏠린다. A3-6a블록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2월 위례 분양 첫 스타트를 끊는다. 총 673가구 규모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구리와 하남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신규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각각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리 갈매지구에서 C-2블록 '갈매 더샵' 857가구가 3월 공급된다. 이어 하남 미사강변지구 A10블록에서 '미사강변 더샵' 837가구가 5월 분양된다.

이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자로 첨단산업도시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평택에서 우미건설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하버드 형들과 3박4일 멘토스쿨 하버드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날개나눔'팀이 주관하고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제2회 날개나눔 리더십 컨퍼런스가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한화인재경영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하버드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들이 팀별 활동을 하는 모습. /한화 제공

SK건설 '행복한 초록교실' 환경교육 인증

SK건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SK건설은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초록교실'이 환경부가 수여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행복한 초록교실은 SK건설 임직원이 초등학교 일일 교사로 나서 초등생들에게 환경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 및 활용, 세계 각국의 친환경 도시 등을 교육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행복한 초록교실 문을 처음 연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현재까지 전국 362개 초등학교의 1098학급 초등생 3만2940명이 환경 교육을 이수했다.

SK건설은 이번 인증으로 환경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발급받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박선옥기자

스키장서 BC카드 결제 경품 '펑펑' 쏟아집니다

BC카드는 겨울 스키·보드 시즌을 맞아 레포츠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BC 스키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휘닉스파크, 알펜시아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오크밸리리조트, 하이원리조트, 엘리시안강촌, 용평리조트, 비발디파크, 웰리힐리, 에덴밸리 등 10개 스키장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또 BC카드 결제 고객을 비롯해 ▲BC모바일카드 소지 고객 ▲와 포인트 비씨콕 앱 다운로드 및 가입 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10개 스키장에서 BC카드로 결제하는 비씨콕 고객들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선옥기자

물 뿌리자마자 '꽁꽁' 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한 피자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날 출동한 소방관들은 호스로 물을 뿌리자 꽁꽁 얼어 물을 적도의 강추위 속에서 몇시간이나 불길을 잡느라 애를 먹었다 /AP 연합뉴스

북극곰도 대피했다

북미 지역을 강타한 한파 속 미국 일부 지역은 지구 밖 화성 보다도 기온이 낮다고 7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전했다.

하와이를 제외한 미 전역과 캐나다 전체가 이날 영하권에 들었다. 미네소타는 영하 37도를 기록했고,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강풍으로 인한 체감온도는 더 낮다. 몬태나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다.

'냉동고 한파'로 불리는 이번 추위는 화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혹한과 맞먹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보내오는 화성 지표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1도 정도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로 미국에서만 최대 2억 명이 추위에 떨고 있고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한파는 극지방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미국이 남극에서 운영하는 아문센스콧기지의 7일 측정 기온은 영하 23도였다.

살인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미 캐나다 '냉동고 한파'에 꽁꽁

3일(현지시간) 미 국립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지구 관측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미 북부가 폭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체감기온 영하 52도까지 내려가 남북극은 물론 화성보다도 추워 2억명 고통 속 10여명 사망 추정

오하이오주에서는 6일 90대 할머니가 눈더미 위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고, 시카고에서는 남성 4명이 쌓인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6일 오후에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를 잇는 암트랙 열차가 폭설로 고립되는 바람에 승객 500명이 열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하늘길도 꽁꽁 묶였다. 미국 전역에서 이날 항공 2500편이 결항됐고 3400편이 연기됐다. 토론토공항은 한파로 장비가 얼어붙어 현재 전체 지상 업무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파로 인한 난방 문제도 심각하다. 가스와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등의 가스회사들은 추위로 가스관 설비가 얼어붙는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다. 멤피스와 테네시 등에서는 폭설로 정전 사태가 빚어져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매서운 '북극곰 한파'에 북극곰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의 링컨파크 동물원은 북극곰 '아나나'가 한파를 피해 실내 우리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만델라 일생 그린 영화 남아공 흥행 기록 경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전기를 담은 영화가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만델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남아공판 영화 '변호인'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

7일(현지시간) 영화 제작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개봉한 영화 '만델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 5주 만에 2062만 랜드(약 20억 9000만원)의 관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만델라의 전기를 다룬 영화는 앞서 세계 각국 정상들의 이야기를 그린 다른 영화들보다 흥행 성적이 좋다. 말더듬이 영국 왕 조지 6세를 다룬 영화 '킹스 스피치',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철의 여인' 등의 흥행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다.

만델라의 일생을 담은 이번 영화에는 그가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 등이 담겨있다.

/조선미기자

美 2인조 래퍼 북한뮤비 공개 평양 거리·지하철 군인도 등장

미국 2인조 흑인 래퍼가 북한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사진)가 드디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인 래퍼인 픽앵(20)과 제소(21)는 7일(현지시간)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북한으로의 탈출(Escape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렸다.

약 2분 분량의 이 뮤직비디오는 이들이 지난해 말 중국을 통해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한 것이다. 평양 거리를 비롯해 지하철, 북한 주민, 군인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지난해 중국과 북한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여행경비 모금에 나섰으며, 목표액인 6000달러를 훨씬 넘는 1만400달러를 모은 뒤 북한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현기자 krlee@

수십억대 코카인 슈퍼에 '배달사고'

수십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독일 베를린의 슈퍼마켓으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은 "코카인 140㎏이 바나나 상자에 담겨 배달됐다"며 "콜롬비아에서 함부르크를 거쳐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마약수사대는 배달 사고로 코카인이 '엉뚱한'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코카인은 말매 가격으로 600만 유로(약 87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다. /조선미기자

66년 해로 부부 한날한시 하늘로!

metro Brazil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66년을 함께한 아리 피리스 우베르자(사진 오른쪽)와 에바 데갈리오미니 우베르자(왼쪽)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이 맹세를 평생 지키리라 약속했고 결국 결혼 66주년을 맞이한 나흘 뒤 같은 날 함께 눈을 감았다.

손녀 프라실라는 "두 분은 항상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오면 한 날한시에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셨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브라질 자과리에서 태어난 아리는 17세가 되던 1947년 당시 15세의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둘은 그들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잘 살아갔다. 남편은 화가로 아내는 재봉일을 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친구나 자녀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2009년 아리는 뇌를 다쳐 4년간 병상에 누워있게 됐다. 에바도 그의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시위아 함께 남편을 열심히 보살폈다. 그러던 중 둘은 12월 7일과 10일 각각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시간15분 차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정리=손유전 인턴기자

악마 가면 쓰고 액땜? 6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질레로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디아블라다' 축제에서 한 남성이 '악마 가면'을 쓴 채 즐거운 춤을 추고 있다. 매년 1월 초 에콰도르에서는 악마로 분장한 사람들이 벌과 상자칭을 들고 행진을 하며 지난해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화제의 인물들을 풍자한다. /AP 연합뉴스

빙어떼 꼬물대는 빙하시대로 고고!

추워야 제맛! 겨울축제의 꽃 '인제빙어축제' 18~26일 열려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한국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에 소개된 축제가 있다. 바로 겨울 축제의 꽃 '인제빙어축제'다. '빙하시대' 놀이천국'이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강원 인제군 인제대교 인근 소양호에서 열리는 축제에 당신을 초대한다.

◆손님맞이 끝낸 빙어축제

축제는 이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인제군은 매년 이맘때쯤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천지신명과 소양강 수신(水神)을 불러 안전사고 없는 재미있고 행복한 축제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지낸다. 올해는 지난 3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인제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비는 고유제를 이미 진행했다.

또 올해 빙어 조황이 풍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행락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 전인데도 소양호 상류 빙판에는 강태공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지역 내 낚시점과 소양호 인근 어촌계 등에 빙어 낚시 조황과 구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포근한 날씨에도 소양호 상류의 얼음이 두꺼워지고 빙질도 단단해지고 있어 축제 개최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는 점도 축제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있다.

◆빙어와 함께 겨울을 즐겨라

축제에서는 축제의 주인공 빙어를 실컷 즐길 수 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빙어 낚시와 낚시로 잡은 싱싱한 빙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또 튀김과 버섯 등으로 빙어를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으며 빙어먹거리존, 산촌먹거리존 등에서는 1급수 맑은 소양호에서 잡아 올린 자연산 빙어를 재료로 한 빙어회 무침, 튀김 등의 색다른 빙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빙어를 주제로 한 얼음 빙어세상, 빙어마을 평생학습 체험마당, 빙어마을 한마음 가족 썰매장 등도 준비된다.

이와 함께 관람객과 주민이 함께 대형 그물로 민물고기를 잡는 소양호 어름털기가 이어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이색 겨울 풍경으로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대형 눈조각과 얼음터널, 비상하는 빙어 조형물 등이 조성되며 빙어마을 힐링캠핑장, 소양강 들레길 트레킹 대회, 산촌문화 체험, 아이스모빌 투어, 빙벽 타기, 전국얼음 족구대회, 전국 빙어 노래자랑 등도 이어진다.

◆'뜰채 낚시'로 빙어를 잡아라!

즐거운 겨울 축제지만 초보자가 빙어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빙어 낚시는 미끼를 바닥으로부터 떡밥을 뒤 살짝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찍음 낚시'를 이용해야 한다. 또 빙어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빙어의 입질이 없다면 한곳에 집착하지 말고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만약 흐리고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려 햇볕이 없다면 온종일 빙어의 입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 뜰 무렵과 해 질 무렵은 빙어의 입질이 가장 왕성할 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월 18~26일(토~일요일)
– 장소: 강원 인제군 남면 인제대교 변 소양호 일대
– 문의: 인제군문화재단 033)460-8972~5

팔도 '화천산천어축제' 후원

팔도가 강원도 화천군과 협약을 맺고 지난 4일부터 '화천 산천어 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 축제 기간 팔도는 행사장 내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일품해물라면'과 '볶음면' 등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시식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시식회에서는 신제품인 '불낙볶음면'과 '불짜면'('일품짜장면'+'불낙볶음면')을 공개해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황태 익는 마을, 용대리 들렸다 가실게요

인제에는 빙어만큼 유명한 것이 또 있다. 황태를 비롯한 '인제 5대 명품'이 바로 그것이다.

◆맛·건강 책임지는 5대 명품

5대 명품 중 으뜸은 인제 황태다. 인제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황태 생산지다. 특히 일교차가 큰 인제 용대리는 지리·기후적으로 황태를 생산하기에 최적지로 꼽힌다. 황태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며 영양이 풍부해 간장 해독, 숙취 제거, 공해 해독, 노폐물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 또 황태는 국, 찜, 구이, 전, 볶음, 조림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풋고추다.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큰 해발 700m 가량의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인제 풋고추는 인제 천혜의 자연이 키워낸 맛을 자랑한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 이나 전국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된 웰빙식품 콩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제에서는 콩이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물로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인제 콩으로 만든 내린천 두부 또한 그 고소한 풍미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외에도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의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오미자와 깊은 산속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곰취도 인제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물이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북극곰 수영축제

– 날짜: 1월 12일
–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 스포츠로 선정한 축제로 세계 '인간 북극곰'들을 직접 볼 수 있다. 한겨울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서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몸풀기 댄스난장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 날짜: 1월 11~14일
– 장소: 제천시 의림지 일원

빙어 낚시를 비롯해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얼음 마라톤 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며 제천시장배 빙상경기대회도 함께 열린다.

관절질환 및 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재발하거나 만성환자인 경우도 치료 가능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왼쪽 팔꿈치 및 무릎 인대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자주 질환이 재발해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다. 평소 수술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C씨는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환자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 가능해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원장은 C씨의 상태를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에서만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해 C씨를 치료했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만의 이 치료법은 기존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또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의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주사 치료를 받은 C씨는 이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의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현재 C씨는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더욱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은 이처럼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선행한다. 이후 질환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은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치료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는 자신에게 맞는 재활 도수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의 02)336-2200 /황재용기자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 최현우(왼쪽) 원장과 배우 권기준

전기장판 온도 수시 조절로 1만원 절약

겨울 난방비 줄이는 노하우

지난해 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전기매트, 보일러를 장시간 쓰는 겨울철에는 자칫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절전을 실천해야 한다.

겨울철 건강 실내온도는 18~20도. 실내온도를 23도에서 20도로 3도가량 낮게 설정하면 약 20%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평소 내복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현관문 및 창문 등새에 문풍지를 붙여 외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습관도 들이는 것이 좋다. 내복은 체감온도 3도, 무릎담요는 2.5도, 덧신은 0.6도 정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은 형광등(40㎾) 20~30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므로 평소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장판이 따뜻해진 다음에는 바로 온도를 낮추고 오랜 시간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는 식이다. 실제로 전기난방기기 1대(1㎾)를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976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평소 사용한 전력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세' 때문이다. 현행 누진세는 월 전기 사용량이 100㎾h 미만일 때는 1㎾에 59.10원에 불과하지만, 500㎾를 넘으면 무려 11배나 높은 690.8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난방제품 구입 시 에너지효율 등급을 확인한다. 등급 간 효율 차이는 5~7% 정도 나는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가정 내 전력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절전형 난방제품을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귀차니스트여, 원터치하라

열기 편한 텀블러·끈 대신 다이얼 트레킹화 등 손짓

최근 번거로운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 코리아는 엄지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오픈할 수 있는 원터치 텀블러 'JNL'을 최근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음용구도 원터치로 쉽게 분리해 입이나 음료가 직접 닿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다이얼을 돌려서 손쉽게 신발을 착화할 수 있는 보아클로저 시스템이 적용된 트레킹화 '메리스'를 출시했다. 끈을 묶고 푸는 단계 대신 다이얼을 돌려서 한 번에 자신의 발등과 발 모양에 맞게 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간편하게 착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제과는 간편하게 용기에 든 껌을 꺼낼 수 있도록 원터치 캡을 적용한 '스마트 업' 3종 껌을 출시했다. 플라스틱 용기에 리프트 기능을 넣어 뚜껑을 열면 껌이 항상 위로 올라와 있어 편리하게 껌을 꺼낼 수 있다. 운전자들의 졸음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입을 상쾌하게 하는 멘톨향, 쿨민트향, 페퍼민트향 등 3종으로 출시됐다.

써모스 코리아 마케팅팀 김현경 과장은 "2013년 원터치 텀블러의 매출이 전년 대비 133%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고 트렌디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터치 텀블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

내복입는 젊은 오빠들 늘었네

기모속옷 매출 108% 증가
20~30대 비중 64% 달해

올겨울 강추위에 내복을 찾는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8일 패션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이번 시즌 남성 기모 언더웨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8% 늘었다. 이 가운데 20~30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2~3도 오르는 등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움직임이 둔해지고 스타일을 망친다'는 편견 때문에 그동안 젊은층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내복은 소재가 얇고 보온성이 뛰어나 옷의 실루엣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것이 장점. 특히 기모 언더웨어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레포츠를 즐길 때 입을 수 있어 남성들에게 더욱 인기다. 또한 과거 단조로움을 탈피해 비건디 네이비 그레이 등 다양한 컬러에 체크·스트라이프 등 패턴도 ...다.

아이스타일24 상품본부 엄종현 팀장은 "저렴하면서도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복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4대륙 관광지 연예인이랑 누비는 기분

인터파크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스타들 대거 참여 화제

응답하라 1994를 통해 대세남으로 떠오른 칠봉이 유연석을 비롯해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기린 이광수 등 인기 연예인들이 안내하는 '해외 안전 여행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화제다. 이 서비스는 인터파크투어가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한국관광공사·킹콩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제작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오디오 가이드는 로마와 뉴욕·시드니·싱가포르·런던·파리·바르셀로나 등 4개 대륙 20여 개 도시의 안전 정보와 관광 정보를 비롯해 문화·역사를 두꺼운 책과 딱딱한 성우의 목소리가 아닌 친숙한 연기자들의 목소리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연석 외에도 이동욱(왼쪽 사진)·서효림(오른쪽) 이하늬 이광수 이진 유연석·김지진 이청아·임주은·박민우·조윤우·유진이 등 킹콩엔터테인먼트 소속 12명의 연기자들이 목소리 재능기부 형식으로 오디오 가이드 녹음에 참여했다.

오디오 가이드는 인터파크투어 홈페이지와 가이드투어 전문몰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MP3 파일 형태의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PDF 파일 형태의 도시 지도도 제공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인터파크투어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현지 여행사들과 업무 제휴를 맺고 현지 1일 가이드투어 상품과 정보를 선별해 한곳에 모은 '가이드투어 전문몰'을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이 코너에서는 여행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유럽·동남아·아시아·미국·오세아니아 등 지역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매일 진행되는 상품들을 엄선해 선보이고 있다. 또 가이드들이 직접 현지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는 가이드다' 코너도 운영해 실용적인 여행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파크투어 황희순 기획실장은 "앞으로 시티투어에 이어 유럽의 관광 명소인 루브르박물관과 우피치미술관·오르세미술관 등 주요 박물관과 베르사유궁전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ymts@metroseoul.co.kr

중저가 설선물 살땐 11번가로

'명절의 대세' 1~2만원대 뷰티·건강 기획전 다양

온라인몰에서 설 선물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최근 2년간의 명절선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만 해도 햄과 오일 등 가공식품이나 과일·고기 등 신선식품을 선호했다. 하지만 지난해 설·추석에는 화장품과 홍삼·비타민 등 뷰티와 건강 선물세트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홍삼·비타민의 매출은 2012년 대비 2013년 60% 증가한 반면 가공·신선식품 매출은 20%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선호하는 가격은 1만원에서 2만원대로 나타났다. 해당 가격대 상품 등록 수는 매년 1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트11번가 조원호 그룹장은 "꽃할배·꽃누나 열풍에 명절 선물 소비도 어려지고 젊어지고 있다"며 "과일·정육 등 전통적인 명절선물보다 '동안'이나 '건강' 등 의미를 담은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1번가 측은 최근 2년간 높은 구매율과 상품후기 등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위에 랭크된 제품들로만 구성해 오는 10일 기획전을 연다.

보닌 모노타입 2종(1만8900원), '아모레 AP종합 2호'(7900원), 'LG리엔 1호'(1만2900원)를 내놓을 예정이다. CJ스팸 1호(2만900원), '나주배 선물세트 5kg'(1만4900원)은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오가게 남성의류 브랜드 3개 추가 입점

패션 쇼핑몰 오가게가 남성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오가게는 기존 토모나리·아보키 등에 이어 남성 의류 쇼핑 브랜드 '키작은남자' '안녕멋쟁이' '더커플'을 추가로 입점시켰다고 8일 밝혔다.

안녕멋쟁이는 20대를 타깃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키작은남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톡톡 튀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더커플은 도매처를 운영하는 생산업체로 전략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 제수용품 비용 6만원 절약 홈플러스는 8일 갑오년 새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139개 점포 및 온라인 쇼핑몰의 27가지 핵심 제수용품 가격을 지난해 설 대형마트 평균 수준보다 23.2% 인하해 9일부터 27일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플러스 가격 인하 제수용품으로 4인 가족 차례상을 차릴 경우 비용은 총 19만8136원으로, 작년 설 전국 대형마트 평균 차례상 비용(25만8463원)보다 6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제공

줄 때도 받을 때도 한우세트가 좋더라

강강술래 설 명절 선물용 최대 43% 할인 실속 팍자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세트의 대명사는 역시 전통적으로 고급 선물의 이미지가 강한 '한우'다.

부모님이나 웃어른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외식전문기업 강강술래에서 마련한 정성은 더하고 최대 43% 할인을 통해 거품은 뺀 실속 한우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4500원에 판매한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넣지 않아 건강선물로 좋다.

궁중 고급 요리이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갈빗살만을 사용한 꽃잘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는 4만45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떡돈너비아니세트(3박스·1.03kg)는 2만7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의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 12만원, 한우양념1호(8대) 16만원에 살 수 있다. 명절에 쓰임새가 많은 부위로 구성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총 2.4kg)는 14만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고전소설을 재해석한 뮤지컬 삼총사 티켓도 증정한다. 신성우·유준상 등 초연 배우들과 박형식 등 한류 아이돌 스타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 해외 관객 예매 1위 공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영일기자

구글 '크롬북' 내세워 PC시장도 '야금야금'

모바일 시장을 사실상 평정한 구글이 PC 시장 마저 먹어치울 기세다.

구글의 크롬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노트북 '크롬북'을 제조하는 글로벌 메이커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HP, 델, 레노버 등이 크롬북을 만들고 있으며 일본의 도시바가 지난 7일 최신 크롬북을 공개했다.

크롬북이 다양한 업계에서 생산돼 점유율을 키워가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PC 시장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 MS의 OS인 윈도와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지배력은 여전히 크지만 IT업계의 특성상 대세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미 크롬북을 사용하는 미국 내 기업은 전체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크롬북을 쓰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시장조사업체 NPD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 B2B 시장에서 크롬북의 점유율은 9.6%를 기록했다.

크롬북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격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다음달 미국에 먼저 출시되는 도시바 크롬북만 해도 우리 돈으로 20만~32만원이다. 구글이 팔고 있는 태블릿 PC '넥서스7'과 비슷하다.

크롬 OS탑재한 노트북 저렴한 가격에 성능 굿
오피스 프로 무료 사용 하드 아닌 클라우드 기반
안드로이드폰과 호환도

그렇다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13.3인치 액정을 단 도시바 크롬북은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인 하스웰을 장착했고 한 번 충전으로 9시간을 쓸 수 있다. 무게도 1.5kg으로 양호해 종합해보면 50만~60만원 상당의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자랑한다.

크롬북은 웹브라우저 크롬은 물론 구글 독스 등 각종 오피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어 저렴하다. 아울러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일반 노트북과 달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부품값을 아낄 수 있다.

크롬북의 무서운 것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달성한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크롬북을 선택할 경우 호환이나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모바일 시장을 확실하게 '잡은' 구글이 이를 토대로 전통의 PC시장마저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곧 MS의 쇠퇴를 의미한다.

/차현정기자 zen@metroseoul.co.kr

킨들의 땅'에서 전자책 한류 꿈꾸는 '크레마 원'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전자책 단말기의 대명사 아마존 '킨들'에 도전장을 던졌다. 예스24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14'에서 첨려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원'을 공개했다. 7인치 태블릿PC로 진화한 크레마 원은 전자책부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 곳에 담았다. 1기 32G의 와이파이 모델로 가격은 미정. /예스24 제공

'카스2' 한페이지서 다 한다

대폭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카카오스토리가 2.0 버전을 선보였다.

카카오는 기능과 디자인을 강화한 카카오스토리 2.0 버전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버전을 통해 '내 스토리'에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종류별로 모아 볼 수 있게 됐다. 스토리 정렬도 기존 격자 형태에서 시간 순으로 개편해 모든 스토리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격자 형태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은 스토리 우측 상단의 격자 무늬 아이콘을 클릭해 그대로 '내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느낌', '댓글', '공유' 등의 기능은 소식 페이지에서 바로 꺼내 더욱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소식 보지 않기' 및 '신고하기' 등 내 소식 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능도 앞으로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동영상과 음악 포스트 또한 추가 이동 없이 소식 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다.

디자인도 대폭 바뀌었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원의 느낌을 살리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가미했다.

이번 카카오스토리 2.0 버전은 안드로이드 v 2.2, iOS v 5 이상에서 지원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아이폰 시들해도 앱으로 10조 번 애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처럼 아이폰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애플이 여전히 지시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큰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앱스토어 매출은 역대 최대인 100억 달러로 8일(한국시간)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 한 달 앱 매출은 역대 월별 최대치인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폰 점유율은 하락세다. 주요 시장조사업체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80%, 아이폰 15%로 사실상 봉롱 경쟁은 끝났다.

하지만 아이폰은 안방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아시아의 알짜배기 시장인 일본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되레 '마진 높은 장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상훈기자

'곰가이드' 모바일 앱 출시

영화·TV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 곰TV는 영화·TV 프로그램 정보와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합 서비스하는 '곰가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앱은 영화·TV 프로그램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과 배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5만 편 이상의 영화·방송 콘텐츠와 인물 63만 명의 DB를 찾아볼 수 있다. '곰가이드' 앱을 이용하면 VOD 예고편,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모바일로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친구와 공유하고 싶은 영화·TV 정보를 모바일상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문자 등으로 간편하게 공유할 수도 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마켓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주원기자 kmlee@

LG유플 'U+ 브리핑' 이용자 대상 경품 이벤트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회의·연설' 문서를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미팅 솔루션 'U+브리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폰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월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서울시 컴퓨터 10대 중 8대 해킹 무방비

서울시 컴퓨터 10대 가운데 8대가 해킹 등 보안에 극도로 취약해질 위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본부, 소방본부, 사업소의 PC 1만1600대 가운데 윈도XP를 사용하는 비율은 78.5%에 이르렀다. 윈도7 이상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21.5%에 그쳤다.

문제는 윈도XP에 대한 다양한 기술지원이 올해 4월 8일 종료된다는 점이다. 즉 이날부터는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업데이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는 윈도XP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하기 전 윈도7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르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다. MS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XP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는 윈도7이나 윈도8으로 교체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사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12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대다.

게다가 윈도XP를 쓰고 있는 가구의 경우 PC 역시 낡았을 가능성이 커 최신 OS를 사용하려면 PC도 교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한 조립 PC를 산다 해도 30만원은 들기 때문에 결국 윈도XP 사용자는 최소 40만원 이상은 써야 한다. /박성훈기자

탈모 조기치료 하면 모발이식 없이 극복

근본적 치료 않고 섣부른 모발이식 수술땐 탈모부위 확대 우려

중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탈모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 초 중반의 젊은층으로 확산되며 탈모환자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탈모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탈모의 주된 원인은 가족력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유전성 탈모가 대부분이다.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앞쪽 이마의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 유전성 탈모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탈모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증세가 심각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호르몬 과다 분비에 따른 것으로 나중에는 정수리 모발까지 가늘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이와 달리 심리적인 충격 등 누적된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후천적인 탈모가 있다. 또 인스턴트 음식, 카페인, 그리고 흡연이나 미세먼지 등이 후천적인 탈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탈모 치료 '시기'가 관건…조기치료해야 극복 가능

탈모는 머리카락이 생기는 모근이 축소되면서 머리카락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감소해 발생한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짧아지다가 성장이 중지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역력 결핍이나 호르몬 과다 분비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영양 불균형 및 누적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탈모 환자도 늘고 있다.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 당사자의 심신 건강이 회복되고 신체가 자가 복원력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여가 생활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생활 패턴의 긍정적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조기에 탈모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모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 진단에 의한 유전성 확인과 모근 두피 상태를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탈모는 질환…치료 없는 수술은 다른 부위 탈모 불러와

이와 함께 탈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제대로 잡은 유전성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탈모 환자 대부분은 근본적 치료 과정 없이 한 번에 모발이식 수술만으로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인식은 탈모를 더 키워 증세를 악화시킬 뿐이다.

모리치피부과 오준규 박사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 개념이 아닌 건강한 부위의 모근을 부족한 부위로 옮겨 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탈모 치료를 보완하는 치료일 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치료없이 수술만을 감행한다면 다른 부위의 탈모진행으로 재수술이 불가능한 황당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오준규 모리치피부과 원장은 "모든 질환은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완치가 가능하다"며 "탈모 또한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에 앞서 원인 규명을 위한 정확한 진단 후 탈모 증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수술 없이도 탈모의 극복이 가능하다"며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치성 탈모질환 환자의 치료 전(위) 치료 12개월 후 모습

오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탈모클리닉 전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개원 후 12년 동안 모발 이식 3000케이스 외 2600여 건의 난치성 탈모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또 그중 절반이 넘는 1800여 건을 모발이식 수술 없이 체계적인 치료 관리로만 완치시킨 바 있다. /황재용 기자

양파 깔수록 체중 까이네

100g당 35kcal '저열량 재료'
돈육·식초·토마토 등 궁합

연말연시를 맞아 잦아진 회식 자리로 인해 뱃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양파를 이용한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양파는 100g당 35kcal로 저칼로리 음식 재료인 데다가 함유된 케르세틴과 알릴설파이드 성분은 피하지방의 세포 분화를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

양파와 어울려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되는 식재료들을 소개한다.

◆돼지고기

돼지고기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이 함유돼 있는데, 양파의 유황화합물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로 해소에 좋고 당질의 에너지 변환을 촉진해 비만을 방지해준다. 돼지고기 외에도 각종 육류 요리에 양파를 곁들이면 육류의 기름기를 제거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식초

식초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신경을 안정시켜 불면증에 좋다. 식초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양파초절임과 같은 저장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마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피로 해소에 좋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관질환을 예방해준다. 토마토의 비타민과 리코펜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준다. 둘 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

◆콩나물

양파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콩나물 역시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므로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해장국은 숙취 해소에 제격이다. /정영일 기자

'귀'막힌 그녀, 회식 3차 너무 달렸군요

소음성 난청·성대 결절
'노래방 후유증' 조심을

연말 송년회에 이어 연초 신년회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와 함께 가무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지나친 음주가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뿐 아니라 귀와 목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30분마다 귀에게도 휴식을

술자리는 대부분 클럽이나 노래방으로 이어진다.

노래방이나 클럽의 소음 정도는 100~115dB로 100dB 이상의 소리에 15분 이상 노출되거나 90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 110dB 이상의 소음에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소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져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소음에 귀가 무방비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귀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소음에 노출된 후 귀가 먹먹하다거나 '삐~' 등의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하한용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음이 많은 곳에서 모임을 하면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도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과음·과식·고성방가, 성대 결절·폴립 유발

술자리를 갖는 곳이 시끄럽다면 귀와 함께 성대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목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내게 되는데 이는 성대를 붓게 하고 과음과 과식 역시 성대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대 점막이 건조하고 부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것은 성대에 무리를 줘 성대 결절이나 폴립을 유발할 수 있다.

예송이비인후과 오재국 보이스이비인후과 원장은 "가급적이면 과식과 과음,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며 "성대결절, 폴립 등은 성대를 이완시키고 올바른 발성습관을 찾아주는 음성치료와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어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metro entertainment

배우 유연석(30)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를 통해 10년 만에 대세로 급부상했다. 그것도 기존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나 180도 다른 매력으로 존재감을 알렸다. 기존에 유연석을 알고 있었던 팬들조차 '유연석 맞아?'라는 말을 할 정도다. 데뷔작인 '올드보이'(2003년)를 비롯해 '건축학개론' '늑대소년'에 이르기까지 맡은 캐릭터마다 악역의 이미지가 강했다. 칠봉이의 순수함과 쓰레기의 무뚝뚝함이 공존하는 유연석을 만났다. /장병호기자 yaw@metroseoul.co.kr

"내 안에 칠봉이(<순수남>) + 쓰레기(<무뚝뚝남>) 있다"

'응답하라 1994'로 일약 스타덤 오른 유·연·석

◆10년 오랜 기다림 끝 결과물

2003년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이우진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받으며 영화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초반 분위기와 달리 오랜 기간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구가의 서' 등에 출연했지만 주연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말처럼 '응사'로 10년 만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제 자신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작품의 결과(시청률·관객 수)를 기대하기보다 캐릭터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주변 반응에 흔들림 없이 진정감 있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기다림은 오히려 제게 긍정적인 효과를 줬죠."

덕분에 영화계에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출연이 확정된 것만 세 작품('제보자' '은밀한 유혹' '상의원')이다.

◆'국민 짝사랑' 그의 사랑은?

'응사'를 통해 '국민 짝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유연석은 성나정(고아라)만 바라보는 순정남 칠봉이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성나정에 대한 6년간의 짝사랑을 스스로 매듭지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캐릭터로 긴 여운을 남겼다.

하자 그의 사랑 방식이 실제 칠봉이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경상도에서 소년기를, 서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유연석은 "실제론 쓰레기와 칠봉이가 섞여있다"며 "섬세하고 다정다감할 때도 있지만 티 안 내고 챙겨주는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연애 스타일을 밝혔다.

'응사'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야구장 이벤트' 여행 등을 계획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연인을 위한 이벤트는 가끔 필요하죠. 학창 시절 여자친구와 CC(캠퍼스 커플)였는데 공연과 여자친구 생일이 맞물려 공연 중 조명을 이용해 'OO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직접 글자를 새겨야 됐지만 너무 좋았어요."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종합병원 2' '혼' '고백할 순결' '늑대소년' '화이: 우서은 이야기' 등 22개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악역과 순정남을 넘나들었다. 오랜기간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예능 '꽃보다 할배'를 보면서 제 롤모델과 꿈을 정했어요. 선배들처럼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내고 오랜 시간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그중 롤모델을 꼽자면 이순재 선생님인데 은사님이시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현재 영화 세 편과 CF 7개 촬영을 앞두고 있는 유연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며 국민 배우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제훈(미코드제이제이)·디자인/박은지

악역서 선한 이미지 변신
10년의 기다림 응답했다
'국민 짝사랑' 수식어 얻고
영화·CF 러브콜 줄이어
롤모델은 이순재 선생님"

JYP엔터테인먼트가 2PM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남성 아이돌 그룹 갓세븐(GOT7). 왼쪽부터 JB·잭슨·유겸·영재·뱀뱀·마크·Jr.

외모짱·실력짱… 짱짱한 그룹 갓세븐

면면 화려한 다국적 멤버 7명 공개…15일 첫 무대 선보여

가요계 빅 3 기획사들의 차세대 주자 경쟁에 나선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갓세븐(GOT7)이 베일을 벗었다.

JYP는 지난 3일 리더 JB와 마크를 시작으로 6일 잭슨과 유겸에 이어 8일 Jr.과 뱀뱀·영재까지 7명의 멤버 전원을 공개했다. 이미 2012년 JB와 함께 JJ프로젝트로 활동한 바 있는 Jr.은 외모와 실력·매력을 두루 갖췄고 뱀뱀은 태국 출신으로 귀여운 외모와 달리 수준급의 댄스 실력을 지녔다. 영재는 베일에 쌓인 신예로 파워풀한 보컬을 자랑한다.

JYP가 2PM 이후 6년 만에 배출하는 남성 그룹인 갓세븐은 7명의 다국적 멤버로 구성됐다. 데뷔 전부터 해외 유명 음반사들의 러브콜을 받아 해외 진출도 동시에 기획중이다. 멤버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앞서 공개한 잭슨은 홍콩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이며 대만계 미국인인 마크는 빼어난 외모로 여심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갓세븐은 JYP가 처음 선보이는 퓨전 그룹으로 마샬아츠 트리킹이라는 장르를 특기로 하는 퍼포먼스팀이다. 마샬 아츠 트리킹은 발차기와 고공 터닝 등 무술의 요소들을 담은 동작을 바탕으로 비보잉까지 결합한 화려한 동작이 특징이다.

갓세븐은 15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같은 날 쇼케이스로 첫 무대를 선보인다. 쇼케이스는 다음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이어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데뷔 무대를 열고 20일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엑소가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의 위너가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데뷔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등 3대 가요기획사의 신예 아이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이특 조부모·부친 마지막 길 오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왼쪽)과 박인영 등 유가족이 8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조부모와 부친의 발인식에서 슬퍼하고 있다. /뉴시스

한꺼번에 부친과 조부모를 잃은 슈퍼주니어 이특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특의 부친과 조부모의 발인식이 8일 오전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군 복무 중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던 이특은 이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으며 누나인 배우 박인영도 오열했다.

발인식에는 군 복무 중인 예성을 제외하고 시원·희철·려욱·규현·성민·은혁·강인·신동 등 슈퍼주니어 전 멤버가 참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이특을 위로했다.

고인의 유해는 충남 당진에 있는 선산에 안치되며 이특은 11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대로 복귀한다.

당초 세 사람의 사인은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박씨가 평소 치매를 앓던 부모를 모시느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과 시신이 발견된 상황 및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부모를 먼저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선환기자

PHOTO

'복근미인' 이지원 배우 이지원이 관능적인 밸리댄스를 추며 탄탄한 복근을 뽐냈다. 21일 개봉될 영화 '조선미녀삼총사'에서 단아 검객 진옥 역을 맡은 그는 극중 밸리댄스를 추는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서지경을 찾아나선 진옥이 백관도 내의 연회장에 잠입해 밸리댄스로 관중을 홀리고 단서를 찾는 장면이다. 이지원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마음을 확 훔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선환기자 Isk0427@ 사진/쇼박스 제공

빌보드 "동방신기 '텐스' 마이클 잭슨 팬도 좋아할 음반"

동방신기의 새 음반이 마이클 잭슨의 팬도 만족시킬 음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미국 빌보드는 7일 K-팝 칼럼 코너 'K-타운'에서 동방신기가 최근 발표한 정규 7집 '텐스'의 12개 수록곡을 상세히 소개했다. 빌보드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2014년 새해 첫날 빅 밴드에서 영감을 받은 야심찬 타이틀곡 '썸씽'을 선보였다"며 "이번 앨범에는 카시오페이아(동방신기 팬클럽명)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브루노 마스 등 그 외 R&B 팬들도 만족시킬 만한 트랙들이 함께 수록됐다"고 소개했다.

또 동방신기의 음악적 변화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빌보드는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진보적인 일렉트로닉 곡과 달리 '썸싱'은 과거와 현재의 사운드가 성공적으로 결합된 곡"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록곡 '오늘밤'에 대해서는 "마이클 잭슨의 클래식 앨범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구성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브루노 마스의 앨범 '언오소독스 주크박스'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극찬했다.

이번 앨범은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주요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에서 실시간·일간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 /유순호기자

"고교생 역할 벗었어요"

천우희 '카트' 서 20대 취준생

배우 천우희(사진)가 영화 '카트'에 캐스팅됐다.

8일 나무엑터스는 "천우희가 염정아·문정희·김영애·김강우와 함께 영화 '카트'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천우희가 연기할 미진 캐릭터는 취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일하지만 아직도 꾸준히 면접을 보러 다니는 20대 아가씨다. 톡 쏘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 기존에 천우희가 연기했던 캐릭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질 예정이다.

천우희는 "고등학생 역할은 많이 했는데 드디어 나이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 기쁘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영화에 대한 설렘을 전했다.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의 계약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정성훈기자

'응사' 주역들 콘서트 개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배우와 가수들이 드라마 콘서트로 한자리에 모인다.

CJ E&M은 8일 "다음달 1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응사' 드라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우·고아라·김성균·민도희 등 드라마 주인공을 비롯해 '너만을 느끼며'로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남성 듀오 더 클래식(손지창·김민종)과 015B의 장호일 등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15일 2회(오후 4·8시) 공연으로 진행되는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콘서트'는 배우들과 방송에 흘렀던 OST의 원곡자·가창자가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 콘서트 형식으로 tvN 드라마가 콘서트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티켓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등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성훈기자

케이윌 '별그대' OST 발표

음원 왕자' 케이윌이 안방극장 황태자 김수현과 만났다.

케이윌은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의 OST '별처럼'을 8일 발표했다. '별처럼'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남자의 심정이 담긴 미디엄 템포의 노래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케이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조화를 이룬다. 연일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며 인기 고공 행진을 벌이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김수현의 테마곡으로 쓰인다. /유순호기자 sunoo@

"패션 MD 캐릭터에 필 꽂혔죠"

'로맨스가 필요해 3'로 로코 도전하는 김소연

배우 김소연이 tvN 새 월화극 '로맨스가 필요해 3'(이하 로필 3)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한다.

13일 첫 방송될 '로필 3'는 여자라면 공감할 만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와 주인공들의 섬세한 감정 묘사, 감각적인 영상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로맨스가 필요해'의 세 번째 시즌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홈쇼핑 회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일짜걸들의 경쟁과 우정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더욱 리얼하게 그릴 예정이다.

8일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소연은 "로코를 연기하기 위해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참고했다"며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 극장에서 11번 정도 봤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르의 작품을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노래도 잔잔한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로코물에 출연하게 돼 발랄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은 극중 연약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천성을 지녔지만 직장생활 9년을 하면서 '천성대로 살면 이용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홈쇼핑 MD 신주연 역을 연기한다.

그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신주연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며 "대사 하나하나가 심리적인 면을 파고들더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또 "외적으로도 꾸밀 수 있는 기회였다. 패션 MD 역할이라 매일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썼고 쉬는 날에도 옷을 쇼핑하는 행운을 누렸다"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정성훈기자 [illegible]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의 출연 배우 남궁민, 왕지원, 김소연, 윤승아(왼쪽부터)이 8일 논현로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유아인 안방극장·스크린 동시 공략

영화 '베테랑' 선 첫 악역 · 드라마 '밀회'선 파격 멜로

최근 새 소속사를 찾은 유아인이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부당거래'와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베테랑'의 출연을 결정했다. 재벌과 경찰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로, 유아인은 황정민이 맡은 경찰에게 쫓기는 재벌 3세 캐릭터를 연기한다. 데뷔 이후 첫 악역 도전이다.

3월 방영 예정인 JTBC 새 월화극 '밀회'의 출연도 확정해 SBS '장옥정' 이후 1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극중 40대 여자와 20대 초반 남자의 격정적이고 은밀한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에서 가난한 피아노 천재 선재로 분해 요즘 tvN '꽃보다 누나'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엄마를 살 연상의 김희애와 파격적이고 애절한 정통 로맨스를 연기한다.

소속사 측은 "'베테랑'의 출연을 먼저 결정짓긴 했지만 '밀회'에 대한 유아인의 의지도 강했다. 안판석 감독과 정성주 작가 그리고 얼씨감치 삼대에으로 출연을 확정한 김희애에 대한 남다른 믿음으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편쟁을 과감히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완득이' 이한 감독의 신작 '우아한 거짓말'의 촬영을 완료했으며 정유미와 함께한 애니메이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의 더빙도 마친 상태다. 두 영화 모두 상반기에 관객을 찾는다.

이 밖에도 8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14 가을·겨울 버버리 프로섬 남성복 컬렉션'에 참석해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뽐낸다.

앞서 유아인은 강동원·송혜교가 있는 연합 기획사 UAA(United Artists Agency)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 유아인이 8일 버버리 컬렉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버버리 제공

악동뮤지션 다음달 데뷔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2'의 우승팀 악동뮤지션(사진)이 다음달 가요계에 데뷔한다.

8일 방송 및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달 데뷔 앨범을 발표한다. 다음달 말 시작될 'K팝스타 3' 생방송에서 신곡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찬혁(18)·이수현(15) 남매로 이뤄진 악동뮤지션은 'K팝스타 2' 출연 당시 '다리꼬지마' '라면인건가' '크레센도' 등 독창적인 자작곡을 연이어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우승 후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 데뷔 앨범을 준비해왔다. /탁진현기자

'총각네 야채가게' 日 앙코르 공연

창작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사진)가 다음달 일본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

지난해 도쿄 롯폰기의 어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 호평 속에 막을 내렸던 이 뮤지컬은 다음달 도쿄 케이스테이지 오에서 다시 한번 현지 관객과 만난다. 이번 도쿄 공연에는 아이돌 그룹인 대국남아의 미카, 인준, 슈아이에 민호, 청권이 합류한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채소가게에서 평당 최고 매출을 올리는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한 청년의 실제 성공 스토리를 모티브로 했다. 2008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꿈을 잃은 채 방황하는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꿈과 열정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일본에서 현지 배우들이 연기하는 한국 라이선스 공연으로 선보여졌다. 총 18회 진행된 공연은 전회 매진을 기록했다. 9~10월 한국 배우들이 공연한 어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의 공연은 역대 한국 뮤지컬 중 가장 높은 재관람률을 기록했다.

한편 24일 일본에서는 연출가 김현우와 배우 김남호, 대국남아의 슈아이와 멤버들이 참석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박선운기자

제이지 케이티 페리 테일러 스위프트

<힙합 제왕>

제이지 최다관왕 오르나

그래미 어워드 9개 부문 후보 올라 · '올해의 앨범' 스위프트 수상 유력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의 개최를 앞두고 세계 음악 팬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일단 주의 축은 지난달 일찌감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상태다. '힙합 제왕' 제이지가 최다인 9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퍼렐 윌리엄스, 맥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 켄드릭 라마 등이 각각 7개 부문에 올랐다.

주요 상인 '올해의 앨범' 부문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레드'의 수상이 유력한 가운데 사라 바렐리스의 '더 블레시드 언레스트', 다프트 펑크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 켄드릭 라마의 '굿 키드, M.A.A.D 시티', 맥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와 '더 하이스트'가 후보에 함께 올라있다.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서는 브루노 마스의 '록 아웃 오브 헤븐', 로드의 '로열', 로빈 시크의 '블러드 라인즈', 이매진 드래곤즈의 '레디오액티브', 다프트 펑크의 '겟 러키'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노래' 부문은 '록 아웃 오브 헤븐'과 '로열'이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중복해 올랐고, 핑크의 '저스트 기브 미 어 리즌', 케이티 페리의 '로어', 맥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의 '섐 러브'가 후보자로 선정됐다.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부문 후보로는 여성 컨트리 싱어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를 비롯해 켄드릭 라마, 맥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 에드 시런, 제임스 블레이크가 지목됐다.

시상식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모은 뮤지션들의 공연 무대도 최근 공개됐다. 이번 시상식 공연은 신·구 가수들의 협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팝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다프트 펑크와 함께 특별 공연을 하고,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무대를 꾸민다. 이 밖에 나일 로저스와 퍼렐 윌리엄스, 윌리 넬슨,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멀 해가드와 블레이크 셸턴이 협연한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시상식은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다.

/박선운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뮤지컬배우 송용진, 모델 출신 여성과 결혼

7년 열애 결실 ··· 사회는 개그맨 정준하 맡아

뮤지컬배우 송용진(사진 오른쪽)이 8세 연하의 패션모델 출신 여성과 결혼한다.

송용진은 20일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패션모델로 활동했던 재원으로, 둘은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7년간 사랑을 이어오다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송용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인생이라는 고독한 여행길에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다. 부족한 나를 오랜 시간 옆에서 조용히 지켜준 신부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주례는 배우 송용태가, 사회는 뮤지컬 '라디오스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개그맨 정준하가 맡을 예정이다. 축가는 동료 뮤지컬 배우인 양준모가, 축주는 오랫동안 함께 음악 활동을 한 재즈 피아니스트 임미정이 맡기로 했다.

현재 연극 '나쁜 자석'에 출연 중인 송용진은 결혼을 앞두고 4일 홍대 롤링홀에서 콘서트 '총각 파티'를 열어 오랜 팬들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1999년 뮤지컬 '락 햄릿'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뮤지컬 '헤드윅', '셜록홈즈', '올슉업', '알타보이즈', '그리스' 등 수많은 뮤지컬에 출연했다. 그룹 구바의 메인 보컬로 활동 중이며, 얼마 전에는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도 출연하며 영화배우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박선운기자

'디셈버' 김준수 지방도 예매 완판 행진

티켓 오픈 하루만에 부산 공연 전석 매진

JYJ 김준수(사진)가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이하 '디셈버') 지방 공연을 앞두고 또 한 번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소속사는 8일 "어제 '디셈버'의 부산·대구 공연 티켓이 오픈됐다"면서 "부산의 경우 전석 매진, 대구 공연은 80% 점유율을 보이며 단숨에 인터파크 판매 순위 1, 2위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수는 '디셈버' 서울 공연 1차 티켓 오픈 당시 자신의 회차분의 90%인 4만 장을 완판시켰다. 서울 공연 2차 티켓 오픈에서도 2만 석을 10분 만에 매진시켰고, 마지막 공연 3000석은 30초 만에 다 팔아치웠다.

공연 관계자는 "김준수는 창작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첫 티켓 오픈부터 완판 행진을 보였다"면서 "공연 후에도 전 연령층의 관객에게 김준수의 공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방 공연까지 티켓 파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김광석의 히트곡으로 만들어진 이 뮤지컬에서 김준수는 첫사랑에 대한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지욱 역을 맡아 2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나이대의 연기를 펼쳤다. /박선운기자

'위키드' 1만 그린하트 캠페인 전개

뮤지컬 '위키드'가 새해를 맞아 기부 캠페인 '1만 그린하트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에서 1만 명의 그린하트를 모아서 산간지역 어린이들을 '위키드'에 초대하는 행사다.

온라인에서는 '위키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wickedkorea)의 그린하트 캠페인 포스팅에 하트(♥)로 코멘트를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10일까지 '위키드' 공연장인 잠실 샤롯데씨어터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 현장에서 하트 보즈를 취하고 인증 사진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1만 개의 하트가 모이면 캠페인 기간 동안 참가 신청을 한 네이버 해피로그 지역 아동 센터의 어린이들을 '위키드'로 초대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공연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아이들이 생애 첫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선운기자

선덜랜드의 기성용(왼쪽)이 8일 영국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캐피털원컵 4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니 웰벡과 공을 다투고 있다. /AP 연합뉴스

맨유 '굴욕의 연속'

캐피털원컵 준결승 1차전 최하위 선덜랜드에 1-2패 기성용 공수 활약… 평점 7

기성용(25)이 '중원 사령관'으로 맹활약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가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13년 만에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선덜랜드는 8일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캐피털원컵 준결승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 출전한 기성용은 적재적소에 볼을 공급하는 동시에 수비진을 견고히 다져 팀을 이끌었다.

정규리그 최하위 선덜랜드는 2000년 11월 28일 리그컵 경기 이후 처음으로 '대어' 맨유를 잡았고, 맨유 전 20경기 무승의 늪에서 벗어났다. 반면 맨유는 1일 토트넘 홋스퍼와의 정규리그 경기부터 이날 선덜랜드 전까지 3연패로 위기에 빠졌다. 최근 축구협회(FA)컵 64강에서도 탈락해 데이비드 모예스 맨유 감독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전반 4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라이언 긱스의 자책골로 선취점을 얻었다. 후반 7분 맨유의 네마냐 비디치에게 헤딩슛으로 동점을 허용한 선덜랜드는 후반 19분 맨유 진영 왼쪽에서 얻은 페널티킥을 파비오 보리니가 성공시켜 승부를 결정지었다.

기성용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로부터 평균 평점 7을 받았다.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8을 받은 선덜랜드의 수비스 웨스 브라운 다음으로 높은 점수다.

중원에서 안정된 패스와 수비력으로 팀의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성용은 팀의 핵심 선수로 완벽히 입지를 굳혔다. 지난달 22일 노리치시티와의 정규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6경기(정규리그 4경기, FA컵 1경기, 리그컵 1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지난달 18일 첼시와의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여름값을 높인 기성용은 이날 4강 1차전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으로 여러 차례 가로채기에 성공하는 등 팀 승리에 힘을 보냈다.

축구 전문 사이트 골닷컴도 평점 3.5(5점 만점)를 주며 "수비형 미드필더인 기성용이 전반전 동안 팀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줬다"고 칭찬했다. /유순호기자 sunoh@

박지성 월드컵 무대 뛰나

홍명보 대표팀 복귀 추진… "직접 만나 얘기 듣겠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에인트호번·사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8일 "박지성이 대표팀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내가 직접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닌 만큼 만나서 생각을 들어보겠다"며 "대표팀 복귀 문제에 대해 서로 부담 없이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박지성은 그동안 대표팀 복귀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요구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며 대표팀 은퇴 번복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대표팀을 꿈은 뒤로 새운 홍 감독은 그동안 베테랑 선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팀을 하나로 묶고 신구 조화를 이루기에는 박지성을 능가하는 카드는 없다는 게 축구계의 중론이다.

박지성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나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에도 안정환·김남일·이운재 등 베테랑 선수들이 어린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박지성은 이청용(26·볼턴), 기성용(25·선덜랜드), 손흥민(22·레버쿠젠), 구자철(25·아우크스부르크) 등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유럽파의 정신적 지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큰 무대에서 최상의 전력을 내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홍 감독은 박지성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이상 홍 감독과 대표팀 선수로 함께 뛰었던 박지성이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h@metroseoul.co.kr

에너지가 필요해 8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에서 오리온스의 윌리엄스가 골밑슛을 시도하자 삼성 지재영과 더니건이 방어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승우 연습경기서 첫골 '강렬한 인상'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스타 류승우(21·사진)가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1년간 임대된 류승우는 7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라고스에서 열린 네덜란드 에레디지비에(1부리그) SC 헤렌벤과의 연습경기에 출전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류승우는 14분 만에 결승골을 꽂으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류승우는 같은 팀 주전으로 맹활약 중인 손흥민과 레버쿠젠의 공격 삼각편대를 이끄는 슈테판 키슬링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켰다. 류승우는 이후 상대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키슬링이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연습경기이기는 하지만 류승우는 레버쿠젠 소속으로 처음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강렬한 인상을 남겨 25일 프라이부르크와의 후반기 첫 경기 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편 손흥민은 앞서 열린 첫 번째 연습경기에 출전해 2-0으로 앞선 전반 21분 골을 넣어 4-3 승리에 기여했다. /유순호기자

매팅리, 류현진과 3년 더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27·사진)이 지난해보다 2주 빨리 몸 만들기에 나선다.

전승환 브라스코퍼레이션 아시아 총괄이사는 8일 "류현진이 10일 오후 4시30분 아시아나 202편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브라스코퍼레이션 훈련장 BSTI에서 보름 정도 훈련한 뒤 다저스의 애리조나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LA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구단과 3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정용운기자 ysw@

부산 KT, 창원 LG 꺾고 상승세

부산 KT가 창원 LG를 꺾고 상승세를 탔다.

KT는 8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2013~2014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 LG를 87-85로 꺾었다. 슈터 조성민이 3점포 6방을 포함해 26점을 폭발해 승리의 수훈갑이 됐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을 둘러싼 중위권 구단의 격돌에서는 고양 오리온스가 서울 삼성을 눌렀다.

오리온스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앤서니 리처드슨(20점 7리바운드)과 김동욱(16점 9어시스트)을 앞세워 삼성을 78-72로 꺾었다. 삼성과 오리온스는 나란히 14승18패로 공동 6위가 됐다. 한편 김승현은 이날 어시스트 5개를 보태 주희정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개인통산 어시스트 3200개 고지를 밟았다.

프로농구 전적 8일

팀	1Q	2Q	3Q	4Q	합계
삼성	22	20	16	14	72
오리온스	19	23	17	19	78
LG	18	18	31	18	85
KT	23	19	23	22	87

팀	1Q	2Q	3Q	4Q	OT	합계
신한은행	16	12	17	24	12	81
KDB생명	21	21	12	15	7	78

프로배구 전적 8일

팀	점수	점수	팀
[illegible]	2	3	[illegible]
[illegible]	3	0	한국전력